

전남도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전무 대책 시급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장애인 지원 사업 강화 필요해 건강검진기관 유치·여성 평생교육시스템 마련해야

전남지역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무해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육 접근성의 애로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 정도가 열악해 교육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시스템 마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없는 것과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등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국에 16개소가 있고, 이 중에 부산 2개소 경남 2개소 등 영남권에는 7개소가 있는데 전남은 한곳도 없다”며 “기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만 추가 설치하면 유치조건도 어렵지 않고, 7,400만원 가량의 기능보강비도 지원받는데 행정기관에서 제도도 잘 알지 못하고 유치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58.3%가 초졸 이하이고 무학비율

도 19.5%에 달해 교육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해 교육 등 기초교육 개설편과 인식개선, 교육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신청병원과 협의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여성장애인 교육기관은 현재 3개소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에 문해 교육 등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진군도암면지사협, 노인 틀니 관리 지원까지 폭넓은 서비스

강진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해성, 이상식)가 틀니사용 노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행복천사 릴레이 모금액을 활용

광주시,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54곳 합동점검



인식제고 캠페인도 병행

광주시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과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불법 대어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무단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인식제고 캠페인도 병행한다.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박찬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꿈 이뤘다

한동호 선수, 세계 최초 가이드 러너 없이 그리스 아테네 국제마라톤 완주

웰컴저축은행이 후원하는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가 세계 최초로 가이드 러너 없이 지난 10일 열린 2019 그리스 아테네 국제마라톤에서 42.195km를 완주했다. 11일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한 선수는 웰컴저축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인 꿈 테크 프로젝트 런포드림(Run for dream)의 주인공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이드 러너 없이 홀로 마라

톤을 완주한 것은 세계 최초의 기록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 선수는 이병주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웰컴드림글래스를 착용하고 4시간 27분 38초의 완주기록을 남겼다. 웰컴드림글래스는 5cm의 정밀도로

위치 측정이 가능한 GPS를 포함해 모션센서(Motion Sensor)와 3D캠(Cam)을 장착해 마라토너의 위치와 주위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정보를 이어폰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동한다. 웰컴드림글래스를 착용한 한씨는 마라톤 코스 내비게이션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주위 환경 정보를 전달받아 혼자 달렸다. 한 선수는 “너무 힘든 나머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응원 소리로 인해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난 7 일에는 면사무소 2층에서 도암과 작천 보건지소 치과의사들을 초빙하여 틀니사용자의 구강상태와 관리실태를 검진하고 올바른 틀니관리법에 대한 강의도 실시하는 한편 참석할 모든 노인들에게 틀니 관리용품을 지원하였다. 이날 검진과 강의를 함께 진행한 도암보건지소 박진영 치과공보의는 “의치성 구내염의 경우 대화, 식사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관상동맥질환,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늘 오신 분들의 60% 이상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에서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